

문화

소프라노 정애련 '행복한 뮤지컬'

19일 유·스퀘어문화관에서 '7년만의 독창회'

소프라노 정애련(사진·전남대 음악교육학과 교수)씨가 7년만에 국내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독창회에서는 지금까지 음악회와는 조금 다른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지난 2007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음악대학에서 1년을 보냈던 정씨는 그때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오랫동안 클래식에만 익숙했던 정씨에게 새롭게 접한 '뮤지컬'은 참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행복을 청중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 뮤지컬 넘버를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짰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영국 가곡 'A Black Bird Song', 한국 가곡 '청산은 나를 보고', '고향',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노래로 만든 '넬라 관타지'와 거쉬인의 '포기와 베스' 중 '섬머타임' 등을 선보인다.



씨와 재즈뮤지션 강윤숙(피아노), 김성광(더블베이스), 임민수(드럼)씨가 함께 출연한다.

서울대를 거쳐 이탈리아 로마 예술아카데미를 졸업한 정씨는 미국 LA 한인문화회관 개원 초청연주회 등 13회의 독창회를 개최했으며 헝가리부다페스트 교향악단 등과 협연한 바 있다.

정씨는 "연주자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한 청중들도 함께 빛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춘문에 열병' 앓는 그대에게

광주일보 통해 등단 작가 5명이 들려주는 조언

신춘문의 계절이 왔다. 매년 이때면 '신춘문에 열병'을 앓는 예비문인들이 많이 있다. 밤을 새며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며 작품을 준비하고 당선을 기다리는 심정은 애가 탈 것이다. 그러나 당선 영광을 안는 주인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들은 어떤 욕망과 희망을 품고 해마다 신춘문에 응모하고, 어떻게 준비했을까?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작가들의 등단기와 예비 문인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선배들은 제일 목적으로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강조했다. 신춘문예가 문인의 등용문만큼 열정없는 호기를 부리거나 솜씨 자랑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83년 소설로 당선된 이미란(51·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학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것이 세상이다, 혹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써야한다"면서 "자신이 꼭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긴장감을 주는 구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03년 단편 '칼'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해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작가 주원규(35)씨 역시 '열정'을 강조한다. 그는 "매번 쓰는 작품이 독특한 영역을 다룬 작품이어서 철저한 취재와 열정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신춘문예가 값지다"고 말했다. 또 "신춘문예는 낙방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되고 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창작의욕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1967년 고등학교 재학 때 일찌감치 시 '불멸의 밤에'로 등단한 송기원(52)씨는 당시 신춘문예는 작가지망생들의 꿈이요 등단의 유일한 통로였다고 말한다. 등단하면서 혼란스런 청춘의 시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고 작가는 삶의 목표표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소설가로 시인으로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씨는 "요즘 문학이 빛을 발하고 가난한 사람 끼리 열싸우고 동지애를 느끼던 낭만도 없어

'하루키의 힘' 日 소설 열풍

판매량 지난해보다 25% 증가

추종하던 일본문학의 인기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열풍 속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일본소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소설 판매량은 국내 문학의 약진 속에 전년 대비 11.1% 줄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1-10월 일본소설 출간 총수는 268종으로, 지난해 318종보다 줄어 출간 종수 대비 판매량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소설이 양적 확대만 있고 질적 확대는 없었다는 평이 많았는데, 올해는 출간 종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가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일본소설의 선전은 무라카

미 하루키가 5년 만에 펴낸 신작 장편 소설 '1Q84'의 열풍에 가까운 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 서른 살의 작가 지망생 덴고와 킬러 아오마에의 사랑과 윤리 문제 등을 다룬 '1Q84'는 지난 8월25일 1권이 출간된 이후 줄곧 베스트셀러 상위를 유지하며 2개월여 만에 제작부수 56만 부를 돌파했다. 여기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과 '백야행'이 영화 개봉 소식에 다시 인기를 얻고, 에쿠니 가오리와 오쿠다 히데오의 신·구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식이가던 '문학의 일류(日流)'를 되살리는 데 힘을 실었다. /연협뉴스

영 / 화 / 안 / 내

Advertisement for movie screenings at Megabox, Columbus Cinema, Hamichinema, Cinears, and Jeil Cinema. Lists movies like '2012', 'Penthouse Kookkiri', 'The Man in Black', and 'The Man in Black 2' with showtimes and contact info.

만화 萬話

시립미술관,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전

'공포의 외인구단'의 까치, '발바리의 추억'의 김달호, '불청객'의 구영민 등 1980년대에 발표된 만화의 주인공들은 왜 또 백수였을까? 이는 암울했던 시대에 일 자리를 찾지 못한 광범한 서민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내년 1월31일까지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만화 만화(萬話 萬話)'전을 연다. 한국에 만화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동명 전시의 광주순회전이다. 지난 1909년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의 만평을 한국 최초의 만화로 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부터,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만화 웹툰까지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를 100점의 만화원고를 통해 소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또 김경호, 권용득, 하민석, 배종민, 김한조, 고영일, 김수박, 최인선, 장경삼, 변병준, 채민씨 등 17명의 작가들이 옛 만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 17점을 함께 선보인다. 권용득씨는 1942년부터 일본과 서울에서 '코주부' '똥똥이의 모험' 등을 잡지에 연재했던 권용득의 만화를 재조명한 작품 '남북을 모두 겪은 만화가 김용환'을 선보인다. 또 김한조씨의 '군사정부의 만화검열'은 김한조의 만화주인공 '라이파이'를 소재로 5·16군사정권하에서 행해졌던 만화검열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용정보교생들 '희망의 붓질' 29일까지 명지미술관 '나눔의 빛'전

명지미술관은 16~29일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고용정보산업학교(교장 김장수·옛 소년원) 원생들과 함께 '나눔의 빛'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명지미술관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인 '드림캐처(Dream catcher)'에 참여했던 이 학교 아이들이 미술치료사 류정미씨의 지도를 받아 창작한 작품을 모았다. 엽서 크기의 조그만 합판에 10여명의 학생이 각자 그림을 그린 뒤 합판을 이어 붙여 거대한 숲의 모습을 완성한 '우리들의 이야기'와 자기의 얼굴을 점토로 빚은 '내가 만들어가는 얼굴'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또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고향 들녘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서도 아이들의 꿈이 느껴진다. 문의 061-383-25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